2019년 1월 9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위험자산 선호심리 높아지며 상승

트럼프, "중국과의 무역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

실적 시즌 앞두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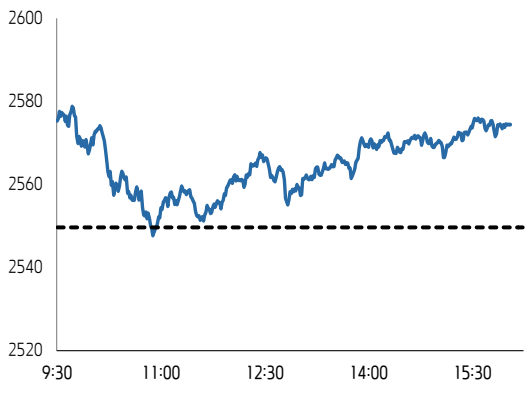
미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론에 힘입어 상승 출발. 이후 실적 우려가 높아지며 반도체와 금융주 위주로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을 보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하는 등 협상 기대감이 높아지며 상승폭 확대(다우 +1.09%, 나스닥 +1.08%, S&P500 +0.97%, 러셀 2000 +1.51%)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상을 하루 연장한 9 일까지 이어진다고 발표. 현재 나오고 있는 소식은 일부 서비스물품 구매를 통한 무역 불균형 부문은 진전되었다고 보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 라고 언급하며 낙관론에 힘을 주는 양상. 그러나 여전히 합의의 핵심인 '지적재산권' 관련 소식이 나오고 있지 않아 협상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은 상태.

한편, 최근 미 증시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종목 보고서들이 많이 발표. 특히 전일 마이크론, GM 이나 오늘 페이스북의 경우처럼 현재 주가 보다 목표주가를 30~50% 이상 높게 발표하는 보고서가 많음. 이들 보고서의 특징은 지난 해 하락폭이 컸던 종목 위주로 바닥을 확인했으며,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발표. 이는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실적이 양호한 기업들 중 낙폭 과대 종목 즉 펀더맨탈이 좋은 종목에 주목하고 있음을 시사.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은 현재까지 발표된 S&P500 기업들의 보고서 중 매수의견은 55%, 중립은 40%, 매도의견은 5%라고 발표. 특히 에너지(67%), 소재(61%), 헬스케어(61%) 등이 매수 의견 보고서가 많은 상태. 그 외 커뮤니케이션섹터는 60%, 산업재는 56%, IT 도 55%가 매수 의견 보고서. 한편, 팩트셋은 4 분기 S&P500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1.4% 증가한 것으로 추정. 특히 에너지(yoy74.6%), 산업재(yoy +14.5%) 등이 이를 주도. 커뮤니케이션섹터는 전년 대비 13.3%, IT 는 전년 대비 3.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정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025.27	-0.58	홍콩항셍	25,875.45	+0.15
KOSDAQ	668.49	-0.65	영국	6,861.60	+0.74
DOW	23,787.45	+1.09	독일	10,803.98	+0.52
NASDAQ	6,897.00	+1.08	프랑스	4,773.27	+1.15
S&P 500	2,574.41	+0.97	스페인	8,847.30	+0.81
상하이종합	2,526.46	-0.26	그리스	626.13	+0.89
일본	20,204.04	+0.82	이탈리아	19,000.14	+0.2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페이스북, 애플 상승

페이스북(+3.26%)은 JP모건이 2019년 최고의 주식중 하나라며 목표주가 195달러를 유지하자 상승했다. 이는 월요일 종가기준 41%의 상승 여력이다. 유니온퍼시픽(+8.73%)은 새로운 최고 운영책임자(COO)를 선임하자 크게 상승 했다. 일부 투자회사에서는 짐 베나 COO가 철도 운영 전략을 높게 평가하며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153달러→178달러)로 발표 했다. NSC(+3.34%), CSX(+1.44%) 등도 동반 상승 했다. 보잉(+3.79%)은 미-중 무역협상에서 제품 구매 가능성이 높아진 데 힘입어 상승 했다. 캐터필라(+1.20%), GM(+1.31%), 포드(+0.97%), 애플(+1.91%) 등 중국 관련 종목들도 상승 했다. 특히 애플은 팀쿡 CEO가 "현재 생태계는 강하다" 라며 언급한 데 힘입어 상승폭이 컸다.

반면 마이크론(-0.76%)은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약한 실적을 발표하자 부진한 반도체 수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 했다. 브로드컴(-0.80%), 텍사스인스트루먼트(-0.13%), AMAT(-4.05%), 램리서치(-1.69%) 등도 동반 하락 했다. 인텔(+0.63%)도 올해 말 페이스북과 AI칩을 이용한 업무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다음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JP모건(-0.19%)은 투자의견 하향 조정 여파로 하락 했다, BOA(-0.20%), 씨티그룹(-0.27%) 등도 동반 하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91%	대형 가치주 ETF	+0.75%
에너지섹터 ETF	+1.01%	중형 가치주 ETF	+1.20%
소매업체 ETF	+0.87%	소형 가치주 ETF	+1.56%
금융섹터 ETF	+0.08%	배당주 ETF	+0.73%
기술섹터 ETF	+0.84%	변동성 ETF	-2.14%
소셜 미디어업체 ETF	+0.38%	대형 성장주 ETF	+1.22%
인터넷업체 ETF	+1.80%	중형 성장주 ETF	+1.34%
리츠업체 ETF	+1.74%	소형 성장주 ETF	+1.54%
주택건설업체 ETF	+0.77%	신흥국 고배당 ETF	+0.44%
바이오섹터 ETF	+0.72%	신흥국 저변동성 ETF	+0.14%
헬스케어 ETF	+0.89%	하이일드 ETF	+0.70%
곡물 ETF	+0.64%	물가연동채 ETF	+0.08%
반도체 ETF	-0.57%	Long/short ETF	-0.7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52.87	+0.83%	+6.79%	-3.92%
소재	325.66	+1.01%	+2.86%	+0.71%
산업재	560.34	+1.41%	+3.35%	-1.63%
경기소비재	826.69	+1.14%	+5.78%	+1.12%
필수소비재	530.59	+0.96%	+1.67%	-5.02%
헬스케어	1,008.30	+0.95%	+0.71%	-3.61%
금융	403.47	0.00%	+1.91%	-2.88%
IT	1,098.35	+0.90%	+0.92%	-2.77%
커뮤니케이션	147.51	+1.58%	+6.29%	+2.65%
유틸리티	269.43	+1.26%	+0.31%	-5.28%
부동산	195.77	+1.78%	+1.77%	-6.5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위험자산 선호심리 높아져

MSCI 한국지수 ETF 는 0.33% MSCI 신흥지수 ETF 도 0.85%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2,252 계약)에 힘입어 0.25pt 상승한 261.0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1.9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미 증시는 경기 둔화를 비롯해 셧다운 등 부정적인 요인에 덜 민감한 경향을 보이며 반등을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종목 중 펀더맨탈이 양호한 기업들이 상승을 주도 하고 있다. 이는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수급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KOSPI 기준 12 개월 Fwd PBR 이 0.79 배, PER 도 8.43 배에 불과할 정도로 한국 증시의 펀더맨탈은 양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2018 년 5 조 7 천억을 순매도 했던 외국인이 미국과 중국 정부의 무역분쟁 휴전 이후 762 억원 순매도에 그쳤다. 이를 감안하면 여전히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이어지며 한국 증시 상승 기대감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애플에 대한 팀 쿡 CEO 의 긍정적인 발언, 국제유가 상승 특히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 또한 긍정적이다. 오늘(9 일)까지 협상 기간을 연장하는 등 어느때 보다 타결 의지가 높기 때문이다. 다만,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어 불안전한 합의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배제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한국 시각 오전 11 시 트럼프 대통령의 셧다운 관련 성명서 발표도 주목된다. 관련 내용에 따라 셧다운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무역분쟁과 북미 정상회담 관련 내용 언급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견고한 미국 고용

11 월 미국 채용공고는 688.8 만 건으로 전월(713.1 만 건) 보다 감소했다. 연말 쇼핑시즌을 앞두고 운송과 창고는 증가 했으나, 그 외의 업종은 대부분 감소 했다. 한편, 이직률은 2.5%로 상승했으며 이는 이직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는 점을 의미해 고용시장의 견고함을 시사한다.

12 월 미국 NFIB 소기업낙관지수는 전월(104.8) 보다 둔화된 104.4 로 발표되었다. 다만 예상치(104.0)를 상회해 시장에 영향은 크지 않았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WTI 50 달러 근접

국제유가는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자 상승 했다. 더불어 사우디의 감산 규모 증가 소식이 전일에 이어 오늘도 우호적인 영향을 줬다. 결국 그동안 국제유가 하락 요인이었던 수요 둔화와 공급증가 우려감이 완화되며 WTI 기준 50 달러에 근접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졌다.

달러화는 유럽 경제지표 둔화에 따른 유로화 약세 영향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 낙관론에 힘입어 강세폭은 제한 되었다. 유로화는 독일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1.9%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감을 높이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브렉시트 토론과 표결을 앞두고 달러 대비 약세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국채금리는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에 힘입어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상승 했다. 한편, 3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75 배)을 하회한 2.44 배에 그치자 국채가격 하락했으며, 이 또한 국채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 및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무역분쟁 완화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0.49%, 철근도 0.17%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WTI	49.78	+2.60	+9.62
브렌트유	58.72	+2.42	+9.14
금	1,285.90	-0.31	+0.36
은	15.713	-0.27	+1.11
알루미늄	1,864.50	-0.75	+1.00
전기동	5,906.00	-0.29	-0.99
아연	2,516.00	+0.72	+1.99
옥수수	380.00	-0.59	+1.33
밀	517.75	+0.19	+2.88
대두	918.50	-0.62	+2.63
커피	105.05	+2.24	+3.14

주요 통화	종가	D-1(%)	D-5(%)
Dollar Index	95.919	+0.26	-0.17
EUR/USD	1.1441	-0.29	-0.21
USD/JPY	108.79	+0.06	-0.87
GBP/USD	1.2718	-0.46	-0.17
USD/CHF	0.9816	+0.19	0.00
AUD/USD	0.7139	-0.13	+1.22
USD/CAD	1.3275	-0.18	-2.61
USD/BRL	3.7137	-0.53	-4.32
USD/CNH	6.8529	+0.09	-0.28
USD/KRW	1124.10	+0.49	+0.75
USD/KRW NDF1M	1121.95	+0.46	+0.72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728	+3.20	+4.38	스페인	1.511	+1.30	+9.80
한국	1.992	+1.20	+3.60	포르투갈	1.818	+0.10	+10.40
일본	0.012	+2.20	+0.90	그리스	4.326	-3.40	-2.00
독일	0.226	+0.50	-1.60	이탈리아	2.952	+5.50	+21.30